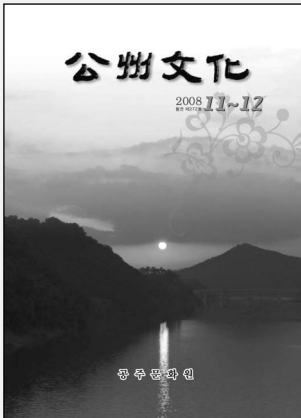




표지사진 : 금강의 일몰
촬영 : 오세광

CONTENTS

02	公州의 어제와 오늘 대통교
03	웅진칼럼 무성산의 숲길 걷기 / 이문하
06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⑭ 근세 문인들과 공주와의 만남 / 백원철
10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⑭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 / 장길수
14	따뜻한 공주사람 이야기⑦ 시민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 나태주
20	[특집] 석장리 유적 발굴 44주년 석장리 박물관의 오늘과 내일 / 이용조
25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⑩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회
27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의당면 송학리(1)
34	공주의 인물 애일당 정분
36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소개 오카리나
38	시청소식
44	내고장 소식
48	미담
50	예술의 향기
54	문화원 소식

등록번호 충남 라01136(1998.6.1)
E-mail:8529005@hanmail.net
홈페이지:http://www.culturegj.or.kr
통권 제272호 2008년 11-12호

발행인_정재욱

편집위원_이극래, 나태주, 구중희,
신용희, 김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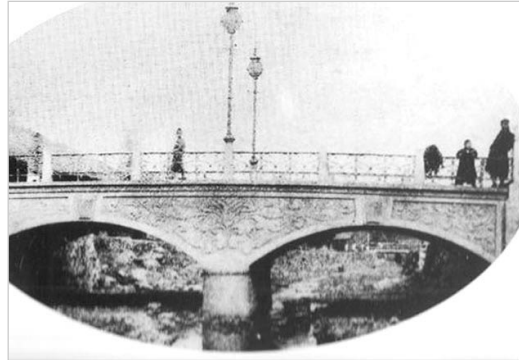
발행처_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041 · 852 · 9005, 852 · 7600

인쇄처_공주신문사
041 · 853 · 8111

대 통 교



1920년대의 대통교 지금의 공주대 부속고교 앞길 제민천 위의 다리이다. 당시에는 충남도청 앞 중심거리에 위치하여 많은 이들의 낭만을 낳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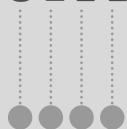


아치형 교각과 인동문(忍冬紋)이 아름답다.

중동과 반죽동을 연결시키는 다리로 대동사 앞에 다리가 있다 해서 대통(大通) 다리, 대통교(大通橋)라고 불렀다. 옛날에는 선화당(宣化堂) 앞에 다리로서, 돌 홍예(虹霓)로 되어있는 다리였는데, 1935년에 시멘트로 다리를 놓고, 대통교라 하다가, 근래에 와서 공주교라 부르고 있다.

지금의 대통교





이 문 하 _

- 공주시 월송동 출신
-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 공주여자고등학교 교장
- 충청남도공주교육청 교육장
-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원장
- 충남외국어교육원 원장
-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무성산의 숲길 걷기

풍수비결서에서 십승지(十勝地)란 말이 있다. 즉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천지 대 개벽이 일어날 때에 재앙을 피하고 보신(保身)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이 죽어도 자손은 무사히 보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10군데 길지를 일컫는 말이다. 십승지를 예언한 책은 정감록, 남사고비결, 징비록, 유산록 등등 약 6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예언서의 최고 브랜드는 정감록이다. 정감록의 감결(監訣)에는 십승지의 하나로 공주 계룡산 기슭과 유구와 마곡 사이 둘레 200리라고 하였다. 다른 책들에도 대부분의 십승지에 공주지역을 포함시켰으니 공주 땅이 예사롭지는 않은 곳임은 분명하다. 또 누구의 말에 의하면 계룡산 백리 이내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언급도 필경 여러 비결서(秘訣書)에서 십승지와 관련되어 나온 말일 것이다. 특히 남사고비결에는 십승지의 범위를 유구와 마곡으로 좁혀놓았다.

격암 남사고(格庵 南師古 1509~1571)는 조선 명종 때 사람으로 주역과 천문지리에 통달하였고, 역학, 풍수, 복서, 관상의 비결에도 도통하였으며 몇 가지 예언은 적중하였다고 하는데, 그는 전국의 명산을 두루 답사하면서 신묘(神妙)한 풍수가로서 많은 일화와 예언을 남긴 사람이다.

격암 남사고가 십승지라 일컫는 유구와 마곡 사이에는 유구천이 흐르고, 마곡사는 명가천을 사이에 두고 무성산이 겹겹이 계곡을 이루면서 이 지역을 호위하고 있다. 이렇게 무성산(614m)은 사곡과 우성 그리고 정안면을 싸안으며 북쪽 방향으로 평퍼짐하게 뻗어있다. 격암 남사고가 그 옛날 전국의 명산을 순례하면서 계룡산을 제쳐놓고 십승지로 유구와 마곡을 점찍은 이유는 필경 무성산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왜냐하면 전국 십승지의 공통적 특징이 큰 산이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숲이 깊고 산속의

공간이 웅색하지 않고 넓으며, 골골이 물이 흘러 수량이 풍부하며, 골짜기마다 논과 밭이 끼어있어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별천지 같은 큰 산이 있기 때문이다. 무성산이 바로 그런 산이다.

무성산은 국립공원 계룡산의 명성에 비할 때 초라하기 그지없으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매력적인 명산도 아니다. 가령 계룡산의 스카이라인은 산 이름 그대로 장담의 화려한 벼슬같이 또는 승천하는 용처럼 다이내믹하다. 그러나 무성산의 산 날은 무디어 마치 멍청한 누에 한 마리가 움크리고 있는 형상이다. 하지만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의 제8조에는, 차현(충남 차령) 이남, 공주강(금강) 밖의 사람들은 벼슬자리를 주지 말라고 하였는바, 바로 차령의 대미(大尾)를 완료한 곳이 아마도 무성산이 아닌가 싶다. 바로 무성산 산자락에 사는 사람들까지는 벼슬을 허용하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필자는 공주에 살면서 무성산에 가본 적도 없었고 대부분의 공주 사람들도 역시 멀리서 보이는 무성산에 무심한 듯싶었다. 단지 무성산은 무덤덤하게 보이는 멍청한 모양새를 지닌 덩치 큰 산일뿐이었다. 그런데 수년 전 직장의 무성산 등반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에 무성산이 얼마나 매력적인 산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특히 무성산은 넉넉한 산림과 더불어 산의 중턱을 휘감아 돌아가는 임도(林道)가 끝없는 숲길을 이루면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가치 명품의 걷기코스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큰 산이 보이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등산을 우선 염두에 둔다. 다시 말하면, 산은 올라가야 하는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등산을 한다. 휴일이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등산클럽, 등산애호가들이 곳곳의 산 정상에서 손을 흔들고 소리치며 호연지기를 맞본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산행(山行)의 트렌드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른바 ‘언저리 산행’이다.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종단산행’이 아니라 산의 능선을 가로지르는 ‘횡단산행’을 말한다.

언저리 산행은 숲길을 가급적 천천히 걷는 것이 제격이다. 무성산은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거리가 직선으로 15Km나 되며 이 큰 산의 허리부분으로 뿔트형 임도가 열기설기 나있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훌륭한 숲길을 이루고 있다. 요즘은 젊은이들의 산악자전거나 산악오토바이 클럽들이 무성산 임도를 애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임도를 드라이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무성산의 남쪽 우성면 한천리에 있는 한천 저수지는 시내 신관동에서 자동차로 10여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다. 필자는 이 부근에 조그만 은거지(隱居地)를 마련하여 우신재(又新齋)라 칭하고 늘 무성산과 교감하고 있다. 한천리 마을



은 공주시에서 5도2촌사업 대상지로서 인심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산촌으로서 외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인구가 점차 늘어난다고 한다.

한천리 영천마을을 지나 무성산 숲길 초입에 이르면 풍치 좋은 노송들이 군락을 이루어 솔향을 은은하게 풍기며, 집채만한 바위들이 즐비하게 놓여있어 영험(靈驗)스러우며 호젓한 숲길에 접어들게 된다. 여러 코스가 있으나, 이 길을 따라가서 좌측으로는 홍길동산성 가는 길이고, 우측으로 가면 평정저수지로 가게 되고, 임도를 따라 좀 더 나가면 정안면 쌍달리와 고성저수지 풀꽃이랑마을로 이어지며, 임도를 따라 더 북쪽으로 나가면 월가리, 거기서 또 무성산을 돌아 다시 그 남서쪽으로는 사곡의 대중리, 계실, 화월리와 저수지 들이 무성산 자락에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필자는 우신재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담소하며 숲길을 걷고, 또 그 숲길을 스케치하며 유화로 그리는 즐거움과 더불어 무성산의 풍요한 자연미에 푹 빠지게 되었다. 무성산 숲길은 늘 산모퉁이에서 그 끝을 감추다가 또 다시 길을 열면서 다른 풍경을 슬며시 보여주며 꼬불꼬불 이어지길 수없이 반복한다. 호젓한 숲길을 앞에 두고 보면 어느새 마음은 사색적으로 된다. 그리고 또 길은 철학적이다. 숲길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길은 또다시 시(詩)적이 된다. 외롭고 고즈넉한 길을 바라보고 걷다보면,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웅색한 생각을 걷어내게 한다. 또한 자연 속에 어울리며 존재하는 나무와 동식물을 보면서 어느새 자기 자신도 그 속에서 객관화시키게 된다.

숲길을 걸으면 생각이 여유로워진다. 숲속의 풀과 이름 모를 조그만 꽃들을 찬찬히 바라보면 신묘한 아름다움을 느낀다. 각종의 크고 작은 수목들과 산새소리는 나를 금세 자연 속에 동화시키고, 팍팍한 세상사로 피폐해진 심신이 정화된다. 무성산 숲속의 신기(神氣)는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중심으로 살아왔다는 자책감과 더불어 과욕을 버리고 남을 탓하지 않고 용서하는 착한 마음을 갖게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라고 한다. 바야흐로 전국각지에서 걷기대회 열풍이 불고 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지원한다. 예컨대, 팔공산 걷기대회, 경주신라의 달밤걷기대회, 문경새재걷기대회, 진주라천리길걷기대회, 파주들꽃놀이가족걷기대회, 원주웰빙걷기대회 등등이다.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우신재에서, 가을의 무성산 숲길을 화폭에 옮기면서 생각해 본다. 공주시에서도, 공주시민들도, 공주의 출향인사모임에서도 무성산숲길걷기 행사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공주 무성산의 매혹적인 언저리산행의 진국 맛을 만끽하며, 무성산이 걷기산행으로는 일품의 명산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그 진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근세 문인들과 공주와의 만남



백 원 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조선 말기에 접어들면서는 공주를 두고 읊은 한인문객들의 시문(詩文)이 전대(前代)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시대적으로 국가의 정세도 긴박하고 사회습속도 각박해져, 한가로이 풍류(風流)와 시주(詩酒)를 즐길만한 여유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그런 중에도 몇몇 문인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음은 다행이라고 하겠으니, 예컨대 고종 때의 문신인 한 장석(韓章錫, 1832~1894)의 경우, 그의 문집인 『미산집(眉山集)』에 시 한 수가 보인다.

외로운 성 한 모퉁이 산머리에 걸쳐 있는데	孤城一片掛山頭
산 아래 맑은 물결 느리게 흘러 멈추어 버린듯	山下澄江緩不流
먼 하늘에 이는 노을 속에 한 폭 그림 장면인데	迥入夕陽明似畫
잔잔한 물결에 비추인 가을 그림자 검푸른 기름갈네	平涵秋影錄如油
하늘 나는 기러기와 함께 돌아가야 할 몸인데	天晴歸雁須同去
찬 이슬 속 우는 매미는 어찌해 울음 그치지 않나	露冷吟蟬底未休
눈을 크게 떠 고향을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고	極目鄉關愁不見
안개 젖은 물결 아득한데 뱃전에 몸을 싣는다네	煙波渺渺客橫舟

〈眉山集 卷一, 錦江舟中作〉

지은이 한 공은 자는 치수(釋綏), 호는 경향(經香)이다. 41세(1872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관인으로서 추요직(樞要職)을 두루 거쳤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청주 한 씨로 고향은 청양으로 알려져 있다.

한공은 갑술년(1874년)에 사헌부 지평으로서, 전라좌도 경시관(全羅左道 京試官)으로 임명되어 호남에 파견된 적이 있었는데, 위 시는 곧 이 때에 지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어서 접할 수 있는 작품은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의 시 한 수이다.



금강의 푸른 물 바닥이 훤히 보이고
가을 산 그림자 속 성벽이 거꾸로 비치네
옛적 임금 머문 곳 풍운의 기색이 돌아
웅장한 요새지에 창검소리 들리는 듯
북쪽 사람 기러기 앞서 이르러
남쪽지방에서 배에 몸을 싣는다네
공명도 못 세웠다 해서 한할게 무어나
산천만은 나그네 마음을 흡족케 하네

錦江清見底
秋影倒層城
行在風雲氣
雄關劍架聲
北人先雁至
南國有舟橫
未恨功名薄
山川懷遠情

〈韶濩堂集 詩集 卷二, 公州拱北樓〉

한말(韓末) 문장4대가(文章四大家)로 잘 알려진 지은이의 위 시는 戊寅年(1878)28세 때의 시이다. 개성태생으로서 젊은 시절 문명을 얻었으며 전국을 유랑하며 곳곳의 문인한사(文人翰士)들과 교유하였는데, 예를 들면 구례의 매천(梅泉) 황현(黃玹), 강화의 영재(寧齋) 이건창(李建昌), 경기 광주(廣州)의 추금(秋琴) 강위(姜偉)등인데, 이들이 곧 한말 4대가로 불리는 인물들이다.

뒤에 창강은 1891년 (고종)전사가 되고 이어 통정대부가 되어 관직에 잠깐 나아가기도 했으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청나라의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조선의 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조국독립의 염원을 안고 『한국역대소사(韓國歷代小史)』등 저술을 통하여 망국민(亡國民)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노력하였다.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 역시 한말 4대가로서 문명이 있었는데, 공주를 오가며 여러 수의 시를 남겼다.

십년이나 멀리서 명산을 바라보았더니
하룻날 올 수 있어 오르게 되었구나
봄이 저무니 꽃잎은 떨어져 냇가에 쌓이고
절을 휘도는 종소리 봉우리 사이로 사라졌네
간사한 인물의 참언에 백성들 목숨도 잃었는데
신이한 조물주의 웅 못에 옛 바위는 그대로네
훌륭한 경치에다 사나운 짐승 아예 없으니
나무꾼 피리소리 누워 듣다 달빛 속에 돌아오네

十年遙望此名山
一日能來取次攀
春盡花填諸澗口
寺回鐘斷兩峰間
奸雄作讖愚民死
神物成湫古石頑
勝境判無豺虎跡
臥聞樵笛月中還

〈梅泉集 卷三 十一, 入鷄龍山 宿白巖洞口〉

지은이 매천은 전라도 광양 출신으로서 1885년(고종 22)에 생원시에 장원하여 명성을 얻었으나, 시국의 혼란함을 개탄하며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향리에 은거하며 학문과 수양에 힘쓰던 그는 경술국치(1910년)를 통분히 여겨 절명시(絶命詩) 4수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다. 선비로서 망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울러 침략자 일제에 대하여 죽음으로서 항거한 곳곳한 기상을 보여준 것이다. 위 시는 기해년(1899) 지은이 45세 때의 작품이다.

모래 가에 앉아 오는 배 바라보니
봄물 속 샅대는 모래톱에 반쯤 드러나네
푸른 산골 뱀은 곳에 강줄기 휘도는데
풀 위로 부는 바람에 언덕은 물결치는 듯
호서 호남의 뛰어난 경치 쌍수정에 이어졌는데
백제국의 흥망은 흰 갈매기에게나 물어볼까
술 지닌 채 나룻 터 관리 부끄럽게 바라보나니
일찍이 열 번이나 건너 여러 수령 찾았구나

沙頭人坐望來舟
春水全露半洲
峽翠微分江勢轉
艸風不斷岸身流
兩湖形勝連雙樹
百濟興亡問白鷗
把酒羞看津吏面
曾經十渡訪諸侯

〈梅泉集 卷三十一, 錦江〉

위의 시로 보아 지은이는 금강을 여러 번 건넌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마다 대체로 문사(文士)들이었던 공주의 수령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시국은 점점 혼란스럽고 위급해 지는데 술이나 들고서 자주 나루를 건너는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도 부끄러울 만한 것이기에, 나룻 터를 지키는 관리의 얼굴을 바라보기에 부끄러움을 갖는다고 한 것이리라. 이어 매천은 마곡사를 찾아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고 있다.

멀리 보니 소나무 숲 먹처럼 검고
마을 끝엔 수풀이 우거졌네
물과 돌을 맑게 서로 짝하고
암자와 요사는 여기저기 깊숙이 앉았네
세상이 박하니 복지를 찾아들고
사람이 늙으니 깨끗한 마음 들어나네
산행의 괴로움 다 잊어 버렸는데
앵무새는 고운 노래 서로 다투고 있네

遠看松似墨
村盡有叢林
水石清相敵
庵寮散名深
世澆尋福地
人老發禪心
忘却山行苦
嚶鳴競好音

〈梅泉集 卷三十一, 麻谷寺〉



다음은 영재(寧齋) 이견창(李建昌, 1852~1898)의 시 『금강의 가을기러기(錦江秋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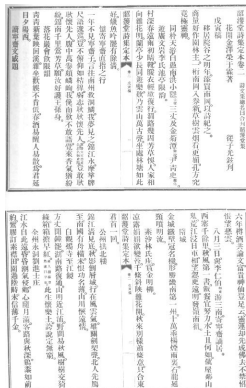
크기로는 천지의 봉새만 못한데도
 힘차게 일어나는 회오리바람에 풍운을 타고
 작기로는 인가의 제비만 못해도
 아로새긴 정자 곁에 빠른 모습 드러내네
 강북 강남 다니는 길 길기만 한데
 해마다 오고가며 왜 그리 바쁘더냐
 주살을 두려워아니하고
 곡식도 좋아하지 아니 하네
 수고롭고 또 수고롭게 살지만
 감히 몸상하지 않을 줄 안다네
 문득 당년에 머물던 곳 만나면
 한 가닥 맑은 소리 소상강에 가득하네

大之不如天池鵬
 扶搖羊角風雲乘
 小之不如人家燕
 雕樑繡幕呈絢鍊
 江北江南道路長
 年年去來何事忙
 不是畏矰矰
 不是戀稻粱
 勞苦復勞苦
 心知不敢傷
 忽遇當年留爪處
 一聲清怨滿瀟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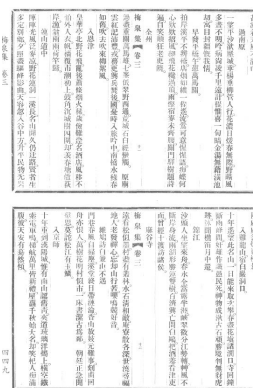
<明美堂集 卷五 詩三, 錦江秋雁>

지은이 영재는 다른 4대가와는 달리 15세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일찍이 벼슬에 나아갔다. 23세에 서창관이 되어 청나라에 들어가 그곳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문명을 떨치기도 하였다. 다음해 충청우도 암행어사로 나왔을 때, 사감(私感)으로 선비를 장살(杖殺)한 일 때문에 남쪽으로 유배당했는데, 이때에 공주를 지나며 지은 시가 곧 위의 시이다.

공주공북루



임계룡산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14)

장 길 수

— 봉황중학교 교장
— 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II. 땅이름 속에 살아있는 옛 터

7. 정자(터)와 땅이름(1)

정자란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을 말한다. 보통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마을 입구에도 정자가 서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건물이 적었던 예전에는 정자가 이정표 또는 표지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요즘 말로 랜드마크(landmark)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즉 정자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 있는 곳의 땅이름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면 '쌍수정'이란 이름은 그 정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정자가 서 있는 땅이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자가 있는 곳 또는 정자가 있는 마을 등으로 불리면서 아예 땅이름으로 굳어진 경우도 많다. 정자말,

정자동, 사송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 정자나무와 땅이름

정자는 커다란 나무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송정(松亭), 행정(杏亭) 등 나무와 관련된 정자이름이 많이 남아 있다. 때에 따라서는 건물 없이 나무만을 일컬어 정자라고 하기도 한다. 공주의 정자 중에서 나무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나무 정자와 땅이름〉

소나무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민족은 소나무가지가 부정(不正)을 물리치고 제의공간을 정화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출산 때나 장을 담을 때에 치는 금줄에 숯, 고추 등과 더불어 솔가지를 꿰는 데, 이것은 잡귀와 부정(不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는 사철 푸른빛을 잃지 않아 절개의

표상으로 보았고, 오래 사는 나무여서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長壽)의 상징으로 보았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소나무를 좋아하며, 주변에 많이 심고 감상하여 왔다. 그와 더불어 정자도 많이 지어 도처에 송정이란 정자가 많았고, 그 흔적으로 송정이란 동네 이름이 많이 남아있다.

▲송정(松亭) 정안면 월산리, 계룡면 월암리, 계룡면 중장리, 의당면 송학리, 이인면 신흥리, 이인면 이인리 등
 · 송정골 : 탄천면 남산리 남산 남동쪽에 있는 마을. 소나무 정자 나무가 있었음. 송정동
 · 송정리 : 의당면

▲사송정(四松亭, 월송동)

계곡이나 깎아지른 절벽과 같이 풍치가 좋은 곳에는 으레 정자가 있기 마련이다. 정자는 풍류를 즐기던 우리 선조들의 멋스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운치 있는 유산이다. 따라서 계룡산과 금강을 끼고 있는 산자수명한 우리 고장에는 풍치 있는 정자가 많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자가 사송정이다. 사송정은 조선시대 금강가에 세워진 많은 정자 중의 하나이다. 사송정이란 소나무 네 그루가 곁에 있었다 하여 붙인 이름인 듯하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이 지은 택리지(擇里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금강가에 사송(四松) · 금벽(錦碧) · 독락(獨樂) 등의 정자가 있는데, 사송은 우리 집안 정자이고, 금벽은 조상서(趙尙書)의 산장이며, 독락은 임씨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정자다. 이 정자에 올라 강산의 경치를 감상할 만하다.”



사송정(월송동 소재)

이 정자는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월송동의 사송정 마을에 그 터가 남아 있을 따름이다. 지금의 정자는 공주시가 1995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세웠다.

현재의 사송정은 1997년 6월 5일자로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사송정이란 정자’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사송정이 있었던 마을’도 같은



사송정 마을(월송동 소재)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사송정 북쪽에 있는 마을은 사송정 마을의 위쪽이 된다하여 윗사송정 또는 상송정(上松亭)이라 부른다.

▲오송정(五松亭, 주미동)

부여방면 도로를 따라 우금고개를 넘으면 주미동이다. 주미동에서 국립공주병원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부근에 오송정이란 땅이름이 있다. 지금은 정자의 흔적을 찾을 길은 없으나 예전에 다섯 그루의 소나무와 더불어 정자가 있었기에 붙여진 땅이름이다. 오송LPG 충전소가 옛지명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솔정자(장기면 금암리)

장기면 금암리 영상대학 입구에 사기점골이란 마을이 있다. 이 마을 초입에는 솔정자란 표지석과 몇 그루의 소나

무가 있다.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아름답리 소나무가 아름답게 드리워 마치 정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회의도 하고 쉬기도 하여 정자의 역할을 하였던 한다. 그래서 정자 건물은 없지만 솔정자라 불려오고 있다.



솔정자(장기면 금암리)



솔정자 표지석(장기면 금암리)

〈은행나무 정자와 땅이름〉

▲행정동(杏亭洞) 반포면 원봉리 원봉 동남쪽에 있는 마을. 은행나무 정자가 있음.

▲은행정(銀杏亭) 정안면 평정리 사직골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산막이 있었고, 늙은 은행나무가 있음. 동막골이라 함

▲행정(杏亭) 탄천면 광명리 광명이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은행나무가 있음. 대학골을 말함

〈느티나무 정자와 땅이름〉

느티나무는 마을 입구에 있는 흔히 보는 둥구나무이다. 옛날의 관청 터에도 많이 남아 있어 역사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

느티나무는 그 자체가 정자 역할을 하며, 마을의 당산목으로 오래된 느티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상징으로 여겨 왔다.

▲괴목정(槐木亭) 계룡면 중장리 갑사 주차장과 상가 사이에 있는 느티나무 정자. 건물은 없고 나무를 정자라고 한다.

이 정자 나무는 오래 전에 죽었고 지금은 그 밑둥치만 남아 있다. 이 고목은 지금 괴목대신(槐木大神)이라 하여

괴목정 고목(갑사 입구)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괴목대신제’라 하여 민간 차원에서 축제화 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엄정이(奄亭-) 계룡면 월곡리 통샘말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수백년 된 느티나무 정자가 있음.

〈그 외의 나무와 정자, 땅이름〉

▲가나무정이 상왕동 중등골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음. 가목(柯木), 가목정(柯木亭), 가정(柯亭)이라고도 함.

▲백정자(白亭子) 탄천면 북룡리 뒤편에 있는 마을. 잣나무정자가 있었음.

▲오정리(梧亭里) 계룡면 죽곡리 정자말 남쪽에 있는 마을. 오동나무 정자가 있었음.

▲유정리(柳亭里) 계룡면 유정리 남쪽에 있는 마을. 버드나무 정자가 있었음.





나 태 주

- 시인
- 전) 장기초등학교 교장
- 충남 시인협회 회장

시민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 제54회 백제문화제 참관기

백제문화제는 오래된 문화제다. 횃수로 쳐서 올해가 54회니까 상당한 나이를 지냈다. 일찍이 진주의 개천 문화제와 경주의 신라문화제와 함께 3대문화제로 꼽히던 문화제이다. 본래는 백제의 수도였던 두 개의 도시, 부여와 공주가 한해씩 번갈아 개최해왔는데 지난해부터는 두 도시가 동시에 개최하는 걸로 운영되고 있다.

장장 11일간 이어지는 행사일정이다(2008.10.2~10.12). 정식 프로그램만도 팸플릿에 나와 있는 항목이 55개나 되고 상설 프로그램도 12개나 된다. 대단한 행사다. 그 모든 것을 다 따라다니면서 본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또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저 몇 개 프로그램을 보고 그것을 잣대삼아 나름대로 참관기를 써 보고자 한다.

작년엔 문화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개인적인 형편으로 차분히 행사를 보지 못했으므로 올해는 비교적 미리부터 관심을 갖고 행사프로그램을 눈여겨보았다. 평소 관심 있던 음악 프로그램을 살폈다. 행사 2일차 되는 토요일 오후에 해외 초청공연이 잡혀 있었다. 그 음악프로그램에 일본 악기 연주회에 있어서 한번쯤 가보고 싶었다. 또 그날은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백제 웅진성 퍼레이드(가장행렬)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예정된 시간은 오후 6시이지만 4시 조금 넘은 시각에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우선 공산성 서문인 금서루 아래 지역에 있는 연문광장으로 향했다. 문화제의 주된 행사가 연문광장에 마련된 주무대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그쪽 지역의 도로를 막고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아온 바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여 백제문화제는 연문광장, 공산성 성안마을, 금강둔

치공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열리고 몇 군데 역사적인 장소(무령왕릉, 정지산, 신원사)와 공공기관(공주문화원, 공주대백제교육문화관, 공주문화문예회관, 백제체육관) 등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장소를 일원화하고 좁은 지역으로 밀집시킨 일은 잘한 일이다 싶다.

나는 우선 연문광장에 마련된 주무대로 향했다. 공연 예정시간은 5시 30분. 아직은 이른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객석에 마련한 의자에 앉아 있다. 아마도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시외지역에서 일부러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겠지 싶었다. 나는 다시 ‘백제웅진성 퍼레이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보고 싶어 공주고등학교 쪽으로 가기로 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문화제 때마다 한시적으로 열리는 야시장, 먹자거리를 지났다. 예년에 비해 야시장 거리도 많이 정비되어 있고 깨끗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우선 들어서 있는 임시건물이 달라져 있었다. 천막이며 비 가림 시설의 지붕이 깔끔해져 있었다. 그러나 어수선하고 조금은 비위생적인 것은 여전해 보였다. 손님들도 물리는 집에 물리고 한산한 집은 끝없이 한산해보였다. 파리만 날린다 그럴까. 저렇게 장사하여 본전이나 뽐겠나 싶은 집도 있었다. 그렇지만 각설이 타령이 진행되고 있는 조그만 공연장 앞엔 관객들이 빼곡히 들어 차 있었다.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었다.

전통적으로 공주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에서 가장행렬 퍼레이드는 공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연문광장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다. 공주고등학교 운동장에는 벌써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대고 있었다. 동학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에서 오신 스님들도 두어 대 대형차량을 타고 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충 운동장을 둘러보고 다시 나는 거슬러서 연문광장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이 가장행렬 퍼레이드가 낮 시간에 열렸었다. 그런데 이렇게 저녁 시간으로 바뀐 것도 새로운 변화라면 변화라 하겠다. 아마도 준비하는 쪽이나 구경하는 쪽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느긋하고 여유 있겠다 싶어 그랬을 것이다.

5시 30분이 지나니 거리에 줄을 매고 달아놓은 종이 등에 불이 켜졌다. 공주의 거리 모습이 한결 고풍스럽고 으스스해진 느낌이었다. 벌써 거리거리에는 구경꾼들이 나와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예전엔 이 가장행렬을 보기 위해 시골에서부터 아주 많은 구경꾼들이 찾아와 북새통을 벌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오늘은 한산한 분위기이다. 공주의료원 앞에는 환자분들까지 환자복차림으로 몰려나와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연문광장으로 가는 도중, 중동사거리 광장에서 탈춤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현장에 국악기 반주자들이 여럿 도열하여 여러 개의 북과 국악기로 반주를 하고 둘러서 구경을 하는 관객들의 열기가 뜨거워 보였다.

연문광장 주무대에 도착했을 때, 단상에는 새빨간 옷을 입은 일본 여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이것저것 일본말로 멘트를 하고 스님 차림의 남자가 통역을 하고 있었다. 얼굴이며 머리칼이 서양의 백인처럼 새하얀 여자인데 전광판에 비쳐진 모습은 옆으로 퍼져서 그런지 더욱 뚱뚱하게 보였다. 마치 못생긴 오뎅이 인형처럼 보였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청아해서 노래는 들어줄만 했다. 이어서 하늘색 파랑 옷을 입은 일곱 명의 중창단이 나와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다.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온 공연단이라 했다. 오까썬, 어머니를 주제로 한 애절한 노래도 자기네들 말로 불렀고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민요인 <아리랑>과 국민동요인 <고향의 봄>도 불렀다. 서투른 숨쉴까 하지만 그들의 성의가 가상해 보였다. 사람의 느낌은 저마다 비슷했던지 객석에는 여러 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연주회 관람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보는 기회였다. 그녀들은 앙코르곡까지 하고는 못내 아쉬운 듯 손을 흔들며 무대를 떠났다.

그 다음으로 일본 가야금 연주 순서가 있었다. 처음에는 연한 옥색 바탕에 하늘하늘 꽃송이와 꽃가지를 수놓은 하오리 차림의 여자연주자가 나와 혼자서 연주하고 뒤이어 또 한 사람의 연주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 역시 진한 남색 바탕에 노랑고 붉은 커다란 꽃송이를 수놓은 일본 전통차림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일본 가야금은 우리의 것과는 달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본의 가야금 연주가의 모습이다.

은은한 소리라기보다는 쟁쟁쟁쟁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네 느낌으로라면 약간 경망스럽다고나 할까. 우리의 가야금이 바람 소리, 차라리 눈송이가 자분자분 어둑스름한 흙 마당 위로 내려앉는 소리라면 일본의 것은 맑은 연못 위에 빗방울이, 때로는 소나기같이 세찬 물방울이 튕겨서 허공을 치고 오르는 듯했다. 필시 우리의 것이 명주실로 꼬아 만든 줄이라면 저들의 것은 쇠붙이로 만든 철사가 아닐까 싶었다. 흥은 없었지만 그들의 정취만은 대단한 바가 있었다. 도도하다 그럴까. 끊임없이 이어서 연주하면서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또 유종의 미라 그럴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바치는 모습에서 일본인들의 철두철미를 보는 듯싶었다.



일본의 가야금 연주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시내 쪽 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호두라기 소리도 들리고 북소리 같은 것도 들렸다. 가장행렬의 물결이 다가오는가 싶었다. 관객들의 관심이 이제는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는 두 사람 일본인 여자 연주자들에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이음새, 연결부분에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싶었다. 조용한 프로그램이 요란스러운 프로그램에 제압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서둘러 순서를 마무리한 일본인 연주자가 무대를 떠나고 난 뒤, 가장행렬의 물결이 세차게 밀어닥쳤다. 선두에 선 것은 장대를 짚고 걷는 키다리들, 스님들 행렬, 지장암 불교 상징물 행렬. 이어서 공주시내 읍면동 별로 자기 마을의 마스코트를 앞세워 길고긴 행렬이 흘러갔다. 모두들 햇불을 치켜들고 호기롭게 무대와 관객 사이를 흘러갔다. 계룡면, 반포면, 탄천면, 금학동, 옥룡동, 웅진동, 이인면의 순인데 그 사이에 공주시와 자매결연한 일본의 야마구찌(山口)시의 젊은이들(대학생들)도 군청색 일본의 복식을 하고 지나갔다. 그들이 손을 흔들 때 관중석에서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와서 보기가 좋았다.

맨 나중에 백제의 왕과 왕비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공주시내 기관단체장들이 햇불을 들고 입장했다. 얼핏 보니 올해에 뽑힌 왕비가 매우

빠어난 미모였다. 웃는 모습이 이쁘고 이목구비가 특히 흰했다. 들리는 말로는 올해에 새로 뽑힌 왕비가 나와 함께 시를 쓰는 유준화 시인의 따님이라 그러던데 유준화 시인이 어떻게 저렇게 미색이 출중한 따님을 다 두었을까, 적이 놀라운 느낌이었다. 왕비의 부친이 되니까 유준화 시인은 부원군이 되는 셈인가? 나는 혼자서 피식 웃음을 머금어보기도 했다. 잠시 행렬이 멈칫거리는 사이 무리 가운데 있던 관객들이 튀어나가 왕비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고 요란을 떨었다. 사람마다 이쁜 사람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구나 싶은 생각이 또 들었다. 그러다가 보니 이준원 시장의 모습이 왕과 왕비 행렬의 뒤쪽에 있었다. 옛 백제의 조정에 나온 한 신하같이 그 손에 햇불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그 서민적인 풍모가 무척이나 마음에 와 닿았다. 이런 모습을 또 시민들은 좋아하리라.

이제 이 순서가 지나고 나면 'B-boy와 전통의 만남'이란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그래 그런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객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나는 B-boy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볼 것이 없겠다 싶어 무대 앞에서 빠져나 오는데 보니 관객들의 수가 엄청나보였다. 가무음률을 좋아하기로는 고대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알아줄만 하다. 연문대가, 신현보 씨가 운영하는 그 음식점 마당을 가로질러 다시 야시장 길로 돌아오다가 잠시 멈춰 서서 무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 무대에서는 다음의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퍼레이드에 참여한 팀들에 대한 시상식을 하고 있나보았다. 1등에 이인면, 2등에 계룡면, 3등에 탄천면, 하는 식으로 등위가 정해지고 제각각 트로피와 상금이 100만원, 50만원, 30만원씩 주어진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준원 시장이 나와 하는 인사말이 들렸다. “시민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좋은 멘트다. 참 좋은 느낌이 들어있는 말이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나름대로 웅숭깊은 의도가 들어있다고 본다. 맨 처음, 시민의 이름을 부르고 시민을 거론한 것이 좋았다. 시민을 축제의 중심에 두고 주인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다음, 즐거웠느냐고 묻는 것은 축제의 목적이 즐거움에 있다는 말이겠다. 이 또한

축제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다. 축제 자체가 즐거움이고 즐거움 자체가 축제다. 즐거운 인생이라면 인생 자체가 축제가 아니겠는가! 모든 행사가 다 그랬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겠지만 관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마당(장)과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두루 읽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축제의 운영이나 흐름이 많이 민주화되고 자유스러워졌다. 이는 자연스러워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예전 같았으면 가장 행렬, 그 퍼레이드에서 왕과 왕비가 자동차에 위에 마련된 수레를 타고 터억 버티고서 아래를 굽어보도록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도보로 일관했다. 또한 요소요소에 높직이 마련했던 VIP 관람석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데서도 관객과 축제 주관자가 격의 없이 가까워지고 평등해졌다는 걸 감지하게 된다. 모두가 좋은 변화요 기분 좋은 일이다.

내일도 기회가 있으면 시내 쪽으로 나와 마음이 가 닿는 프로그램을 골라서 보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한대로 기분은 좋았다.



축제 중인 공산성

석장리 박물관의 오늘과 내일

이 응 조
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
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교수



1. 머리말

오는 11월이 되면 석장리 첫 발굴이 실시된 지 만 44주년이 되며, 또한 필자도 똑같은 해에 구석기 연구를 시작하였기에 벌써 44주년이 되는 셈이다. 필자는 그 때,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사학과 조교로 있었기에 맨 처음부터 관계를 갖게 되었고 (1차 발굴을 연세대학 대학원에서 실시하였다.) 그 뒤로 계속되는 10년 동안의 조사에 단장이신 손보기 교수님을 모시고 발굴 조사와 연구를 하면서 석장리 연구로 연세대 박물관에 12년간 근무하였다.

필자는 20대와 30대에 온 정성을 들여 구석기 학문을 연구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석장리에 대한 글로는 「구석기시대의 석장리문화」(『공주의 역사와 문화』, 윤용현 공저, 1995),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조사와 나」(班郷 『公州文化消息』 232호, 2002), 「금강유역의 구석기문화와 석장리 유적」(班郷 『公州文

化消息』 252호, 2005), 「석장리 유적의 의미와 박물관에 거는 기대」(『公州文化』 260호, 2006), 「아시아 구석기학회 창립과 우리의 자세」(『公州文化』 271호, 2008) 등을 통하여 석장리와 석장리 박물관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해석을 제시하여 왔다.

이들 내용들이 모두 학술적인 논문 형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제를 가지고 논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필자의 평소 소견과 의견을 제시하여 석장리박물관의 운영에 참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함에도 개관이 된 지 이미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보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들어 석장리 박물관의 진로와 운영에 조그만 길잡이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 종합보고서의 발간

고고학에서의 모든 학술조사는 발굴을

통하여 그 의미를 찾고 여기에 대한 장기간의 학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다.

석장리 경우 손보기 교수는 발굴한지 4년이 되는 해에 「충위를 이룬 석장리 구석기문화」(『역사학보』25·26호, 1967)에서 전체적인 성격을 소개하는 중간발표를 한 셈이었고, 그 뒤 중기 구석기문화층을 대표하는 「석장리 자갈돌 찌개문화층」(『한국사연구』1호, 1968)을, 후기 구석기문화층인 「석장리 새기개·밀개문화층」(『한국사연구』5호, 1970), 전기 구석기 문화에 대한 「석장리 전기·중기 구석기문화층」(『한국사연구』7호, 1972)과 후기 구석기 집터인 「석장리 후기 구석기시대 집자리」(『한국사연구』9호, 1973)를 발표하여 각기 문화층의 성격 분석을 하였다.

그 뒤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집대성한 『한국사』1권(1973)에 「구석기시대」를 집필하면서 주로 석장리 유적과 문화에 대한 해석을 전개하여 석장리 전체의 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뒤 제천 점말 용굴(1973~1980), 단양 상시바위그늘(1981), 단양 금굴(1983~1985)의 조사 등이 계속 이어지고, 바로 이어서 연세대학교를 퇴임(1987)하시면서 종합보고서의 발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손 교수께서는 퇴임

하신 뒤인 1990년, 1992년에 11차, 12차 조사한 뒤로도 종합보고서를 학계에 내어놓지 못한 과제를 남게 하였다.

이제 12차 발굴이 끝난 지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종합보고서에 대한 준비를 어느 곳에서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지 못하는 필자 입장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손 교수님이 퇴임하신 연세대학교에는 제자인 박영철 교수가 부임하면서 끊어졌던 구석기 연구의 맥이 이어졌고 박물관관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더욱 활성화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연세대학교에서도 석장리 종합보고서의 발간 계획은 듣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석장리 박물관에서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인적자원과 아이디어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우선 석장리 유물이 연세대학교 박물관·국립 공주박물관·석장리 박물관으로 3분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석장리 유물을 보려고 한다면 3곳을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유물이 어떤 박물관에 있는 지조차도 전공자로서도 알 수 없기에 연구의 진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석장리 박물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선 석장리 박물관 측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이 종합보고서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의 책임자를 연세대학교 박물관장으로 하고 연세대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한다면 방법이 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굴조사 때 중심이던 담당자들이 이제는 환갑을 넘은 중진학자의 대열에 있어서 각기 자기들이 하여 왔던 연구 분야와 과제가 있기에 사실 그 일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석장리 유물을 갖고 석사 논문을 쓰는 수준에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석장리 박물관에 구석기 전공자들이 책임 있는 부서를 맡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추진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3. 석장리의 주먹도끼 문제

석장리 유적을 대표하는 제 9문화층은 석장리의 첫 발굴의 계기를 만든 중요한 층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석장리 유적을 널리 알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층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이 문화층을 갖고 석장리 유적을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문화층의 성격을 「자갈돌

찍개 문화」로 발표를 하여 이 층에서 출토된 주먹도끼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소홀하였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구석기학계에서는 모비우스의 이론이 고전이면서도 지금까지도 논의대상으로 되는 것은 그만큼 주먹도끼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론과 주장에 따르면 인도를 중심으로 동부로는 주먹도끼 전통이 없고, 찍개 전통만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영향으로 석장리 9문화층도 「찍개문화층」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논문의 제목도 찍개문화층으로 하게 된 것으로 기억된다.

찍개문화층으로 명명된 9문화층에서는 정확히 2점의 주먹도끼가 발굴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현재 그 중의 1점이 석장리 박물관의 로고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는 제 9문화층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고 하겠다.

지난 6월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인류의 여명 : 동아시아의 주먹도끼」 전시회에는 주먹도끼의 연원을 1968년 발표된 석장리에서 찾지 않고(그렇다고 한다면 40년 또는 44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전곡리 출토 연도를 기점으로 하여 30년으로 주먹도끼의 연구역사를 잡



석장리의 주먹도끼

고 있는 개요를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것을 한 예라고 의미를 작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석장리 유적과 박물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석장리 유물의 분석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조직(team-work)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체제로 석장리 박물관이 유지·관리된다고 한다면 석장리의 오늘은 있겠지만 내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그렇게 희망에 차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4.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석장리유적이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손으로 발굴된 최초의 구석기유적이고, 유적지에 국가예산으로 박물관을 개관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국내학술회의에서 출발하여 국제학술회의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체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청원 두루봉·소로리 유적과 단양 수양개·구낭굴 유적 등을 찾아 발굴하여 국내외 학계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 구석기의 위치와 위상을 국내외학자들로부터 평가받았다.

특히 석장리와 같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고 120억을 들여 세운 박물관이 있는 수양개 유적은 지난 1996년부터

제 1회 「수양개와 그 이웃들」이라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하여 위상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이 행사를 매년 계속하여 올해에는 일본 구주에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 13회 수양개국제학술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다. 이 회의에는 지금까지 8개국 학자들이 참가를 신청하여 거대한 학술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라도 국내·외 학술대회를 준비하여 개최한다면 석장리 구석기유적과 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뒤따르게 될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5. 전시문제

석장리 유적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충위를 이루어서 전기~후기 구석기시대까지의 문화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후기 구석기시대의 집터를 발굴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석장리 전기 구석기문화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많이 발표되었고, 또한 연세대학교 출신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문화층을 정말 어렵사리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발굴한 필자로서는 이 시대의 문화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석장리 박물관 측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관계 유물과 자료들이 고고학적으로 전시되어 관계자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학자들이 발굴한 굴포리 집터가 올바르게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석장리 1지구 1호 집터(20,000년 전)의 발굴은 우리 구석기 연구를 한층 빛내주었던 훌륭한 자료이기에 여기에 대한 보다 고고학적이고 참신한 전시가 되어서 석장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시방법은 외국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면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양지바른 자리에 비단 결과 같은 금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석장리 박물관은 우리 모두의 문화적 자산이기에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면 오늘보다도 내일의 영광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조 교수 약력

- 공주사범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석사·박사
- 중국과학원 연예 이학박사
- 충북대학교 교수 겸 박물관장(전)
- 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현)
- 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교수(현)
- 아시아구석기학회 부회장(현)
- 공주석장리 발굴 1회~10회 참가(현)



박물관 전경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회

이번 호에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회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고,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대비 교육을 강조한다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다행이고, 공부를 못하면 큰 비전 없이 그냥 지나가는 혹은 흘려보내는 것이 지금의 청소년 시기입니다.

인성교육과 자아실현의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공부라는 잣대 위에 서서 평가받는 오늘의 교육이 많이 개선되고 보강되었다고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청소년 문제들이 다양화 되고,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충남교육청에서는 각시군 교육청 안에 청소년 상담센터를 두고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청 소속 상담자원 봉사회는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 시내의 각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주1회~주2회에 걸쳐,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자아발견, 자아실현 등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계획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 문제를 포함한 교우관계, 가치관 확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전달 효과가 아주 큰 편입니다.

현재 회원은 18명이고, 회장은 박금선 씨가 총무는 김은미 씨가 맡



아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청 내에 상담 전담교사인 이영준, 방종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봉사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봉사의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그 효과도 컸습니다.

많은 성공사례가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문제가 심각한 어느 학생은 상담을 통하여 행동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멋진 직장인으로 성장한 친구도 있고, 좌절과 우울함 속에서 만사가 부정적이었던 친구도 역시 변화를 받아, 적성에 맞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미래의 꿈을 펼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봉사단원들은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되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모임입니다.

글|김춘원 명예기자



독서치료 연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수교육



포래상담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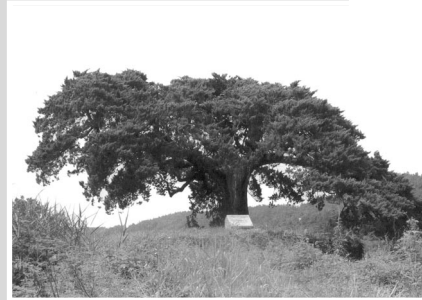


음악치료 연수



친교활동

의당면 송학리(1)



- 지리적 여건과 지명의 유래
- 충신(忠臣) 유지결(柳智傑)
-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어른 유기당
- 몸티의 향나무
- 마을 신앙의 집성촌 송학리
- 송학의 두레
- 거북바위의 전설과 지명
- 지금도 사용되는 들말의 동네 샘
- 신행정복합도시 주변지 마을

전통신앙이
살아 숨쉬는 마을
전통신앙이
살아 숨쉬는 마을



송학1리의 본동에 해당하는 들밭의 전경

의당면 송학리 위치도



지리적 여건과 지명의 유래

송학리는 공주시의 북단 차령산맥의 줄기 중에 의당 사람들의 신앙의 산인 동혈산(東穴山 일명 천태산) 아래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동에서 서로 길게 자리잡은 동혈산은 송학리에 이르러 ㄷ자(字)형으로 갈라져 남쪽 줄기는 청룡리까지 이어지는데 송학리는 ㄷ자 형의 안쪽에 위치하여 안온한 지리적 여건이다.

송학리는 동쪽은 장기면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 싸리고개라는 고개를 중심으로 유계리(柳溪里)와 경계를 이루고, 북으로는 용현리(龍峴里)와 신선이 부채를 잡고 앉아 있는 형국이라는

말로 유명한 가산리(佳山里)와 접하여 동혈산 줄기를 경계로 삼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옛 의당면 소재지이면서 절재 김종서(金宗瑞) 선생의 출생지로 유명한 월곡리(月谷里)와 경계를 이룬다.

의당면은 동혈산 줄기의 남쪽과 북쪽을 경계로 각각 11개의 마을이 작은 생활권을 형성하여 <산 이쪽, 산 저쪽>으로 나누어 부르고 조선조에는 산 이쪽인 월곡리, 두만리, 오인리, 수촌리, 요룡리, 청룡리, 유계리, 송정리가 요당면이고 산 저쪽인 송학리, 용현리, 용암리, 태산리, 가산리, 중흥리, 도신리, 덕학리가 의랑면이었다. 송학리는 산 북쪽의 열한 개 마을의 초입이면서 교통의 집결지로 의랑면 53개 마을의 중심지였으며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큰 창고가 있었고 의당농협 송학분소와 농협의 중심 창고가 위치하여 중심적 역할을 행해왔다.

역사적으로 송학리는 백제 시대에는 웅천에 속하였으며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 시대 말엽에는 공주군 의랑면 지역으로 평촌리(坪村里), 송정(松亭), 양촌(陽村), 유산리(柳山里), 풍천리(豐川里), 학산리(鶴山里), 구암리(九岩里), 미동(美洞), 백자리(栢子里), 은곡리(隱谷里)를 병합하여 송정의 송자와 학미의 학자를 따서 송학리라 칭하고 의당면(儀堂面)에 편입하였다.

현재의 송학리는 행정구역으로는 송학1리와 2리로 나뉘어 있다. 자연마을로 분류하면, 수령 400년에 자태가 빼어난 향나무가 있고 새로운 전원주택이 지어지는 몸티와 안몸티 마을회관이 있는 요령바위, 지금도 주유소와 음식점이 있는 주막거리, 어린아이의 앓은키만큼 작아 아주 친숙한 돌장승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들말과 학미(美洞)가 송학1리이며 농협분소와 창고가 즐비한 송정(松亭)과 양촌(陽村)과 양초촌의 뒤에 숨어 있는 듯이 앉아있는 뒷집매, 지금은 창고가 없는 마을 안동네인 창말, 거북바위의 전설이 서린 구암(龜岩), 그리고 이제 마을이 끝인가 싶은 곳에 조용한 모습으로 들어앉은 은곡이 송학2리다.

충신 유지걸(柳智桀)

송학의 양촌과 은곡을 잇는 국도변 산모퉁이에는 아담한 충신 유지걸(忠臣 柳智桀)의 정려(旌閭)가 있다.

유지걸이 대명충신(大明忠臣)으로 일컬어지면서 정려가 서기까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죽어간 인물이다.

조선조 광해군은 명(明)나라는 쇠약해지고 후금(後金)은 강성해지고 있다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명나라가 후금과 전쟁을 일으키며 조선에게 지원병을 요청하였을 때

유지결 정려 전경



광해군은 강홍립(姜弘立)에게 비밀리 “절대 후금과 싸우지 말고 천천히 출정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의 출정은 명나라 청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누르하치에게 알려라.”는 밀명(密命)을 내렸다.

겉으로는 명나라에 복종하면서 한편으로는 후금의 침략 가능성을 무마시켜 국가의 안전을 도모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싸울 의지가 없는 원병(援兵)은 서울을 출발한지 6개월 후에야 요동 심하에 당도했는데 문제는 열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 유지결이 이 원정군에 형 대신하여 출정하였다는 것이다.

진주 유씨 집안의 장손을 보호하려는 바람과 적손(嫡孫)이며 장남인 형 효걸(孝傑)이 강홍립의 휘하로 들어가기를 꺼려하자 서자였던 유지결이 대신하여 출정하여 강홍립의 휘하로 들어갔다. 이러한 사정으로 출정한 유지결은 당연

히 강홍립이 항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유지결의 계급 또한 이런 비밀을 알 수 있을만큼 높지 않았던 터였으니 싸워 보지도 않고 항복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유지결은 강홍립이 항복을 하자 홀로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항쟁하였다. 그리고는 끝내 후금의 장졸에게 살해되었다.

약속된 항복 때문에 목숨을 잃은 유지결의 충절은 훗날 강홍립이 “나는 유지결에게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게 하였고, 역사는 이를 백기 아래 홀로 순절한 것으로 기록하게 했다.

왕의 밀명에 의하여 항복할 수밖에 없는 출정에서 항복하는 것이 부끄러워 군령을 거역하고, 모든 장졸이 항복을 하여 싸우지 않아도 됨을 좋아할 때 홀로 항쟁하다가 적장의 칼에 목숨을 버린 사람이 유지결인 것이다.

이러한 충절은 그가 죽은 후 177년

후인 정조 때(1796년)에 이르러서야 빛을 본다. 정조가 유지걸의 충절을 기려 호조좌랑(戶曹佐郎)의 벼슬을 내리고 모든 백성이 본받아야 한다 하여 정려를 세우게 된다.

원래 이 정려는 현재 충렬사가 있는 옛 금호선사 옆에 있었던 것을 유지걸의 11대 후손이 유지걸이 생존했던 송학리 현재의 곳으로 이전하였다.

유지걸의 후손 중에는 조선조 말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있다가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송학리에 내려와 평생 무관으로 지낸 류기량이 있으며 현역 장성을 지낸 유근창(柳根昌) 장군이 있다.

유지걸 정려의 현재 모습은 최근에 중건된 것으로 진주 유씨 대종회장을 지낸바 있는 유근창 씨의 성금과 공주시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사업 지원금으로 1998년 중건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어른 유기량(柳基亮)

이 마을 중심에는 학미라는 작은 자연마을이 있다. 현재의 송학2리 마을회관이 있는 곳에 10여호의 농가가 종기 종기 있던 곳인데 학미의 뒷산에는 이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행한 선비 유기량의 묘가 있다.

유기량은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까

지 이 마을에 살았던 인물이며 류지걸의 후손이다. 유지걸 이후 특별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던 진주 유씨 가문에서 어렵게 벼슬길에 나선 유기량은 학미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뛰어나게 총명하여 일찍부터 공부에 전념하였고 과거에 등과하였다. 이후 순탄한 벼슬길에 올라 강원도 창평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런데 하필 한 일합방이 발생하였다. 이에 유기량은 나라가 망하는데도 자신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함을 애석해하며 “부끄러운 나라에서 국록을 먹을 수 없다.” 하고 고향인 송학리에 돌아와 죽을 때까지 항일의 뜻을 품고 굶이지 않고 살았다.

그는 스스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함을 애석해 하였다. 낮에는 고요한 선비였지만 밤이면 나라 잃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통곡을 하기를 자주하여 마을사람들이 모두 알고 그를 추앙하였다 한다. 그리고는 끝내 독립을 지켜보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후반에 한을 품은 채 숨진 애국지사다. 이 마을에서는 아직도 유기량을 추앙하는 노인들의 증언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송학에 40여호에 이르는 큰 씨족이었던 진주 유씨는 197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현재는 12호만 남아 있으니 시사는 매년 음력 시월 초엿새 날 올려진다.

송학리의 남쪽 몸티에 있는 향나무(수령 400년)



몸티의 향나무

송학리는 공주, 조치원, 장기면 그리고 정안면으로 연결되는 네 개의 진입로가 있으며 모두 지방도로 2차선이다.

몸티는 이 중에서 조치원과 공주를 연결하는 남쪽 진입로변에 자리잡은 첫마을이다. 의당면사무소에서 6km 남짓 북쪽으로 올라가면 ‘싸리고개(일명 종고개)’라는 고개가 나오고, 고개를 넘어가면 왼편으로 작은 마을이 산자락에 숨은듯이 앉아 있는 마을이 ‘몸티’다.

몸티라는 마을의 이름은 싸리고개 밑에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라 하여 새신(新) 고개치(峙)의 충청도 발음인 티를 더하여 신치(新峙)였던 것이 앞의 신자가 몸신(身) 자로 바뀌고 이 말이 몸티로 변했다는 것이 이 마을 노인들의 주장이다.

몸티의 동쪽 마을 앞에는 수령 4백년의 향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조선조 중엽에 이 자리에 사창(司倉)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라 한다. 이 나무는 현재 높이가 6.5m에 이르고 나무 밑동의 둘레가 2.5cm에 이르며 나무의 직경이 20m에 이르는데도 나무는 생육이 왕성하여 전혀 노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1982년 공주시(당시 군)의 보호수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매년 2회는 정기적으로 이 나무를 돌보아 낙엽을 떨어주고 잘못 자란 가지를 잘라주고 있으며 정월 대보름에는 이 마을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대동고사를 지낸다.

당초에는 이 향나무 아래서 마을의 대동제(大洞祭)가 올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향나무에 빌면 득남을 한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해당되는 큰 일이 있을 때에 동민들이 모여서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한다. 이것이 1900년대 경이었다.

마을에서 올리는 대동고사는 공주시 일원에서 보이는 두레 풍습의 하나인 농기고사만 지냈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일제 강점기 후기로 오면서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늘어나 농기고사를 올리는 정월대보름에 정기적으로 고사를 지내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후 매년 올려지던 고사는 1970년대 미신타파를 부르짖는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향나무제의 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공업적인 힘에 의하여 양산되는 만수항이 없던 시절에는 조상의 제사를 올리는 향을 보급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심이었던 향나무의 영향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죽는다”는 주장이 일어 1998년부터 다시 향나무제를 올리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몸티의 향나무제는 매년 올려지고 있다.

1998년 향나무제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들은 구본태, 유남위 씨이다.

최근 이 향나무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30년 동안 올려지지 않던 향나무제가 올려지고, 송학리가 신행정 복합도시 주변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갑작스럽게 지가가 상승하여 향나무가 서 있는 송학리 456번지의 토지가 외지인에게 매각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가가 상승하여 시골에서는 아주 비싼 땅이 되었는데 나무가 차지한 면적이 좁지 않고 보니 땅의 임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향나무로 인하여 점유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마을 공동재산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의 지주에게 “그 땅을 문제삼으면 그 논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폐쇄하여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싸움을 해야 했다. 결국 이 나무의 점유 토지는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문제점으로 부각될 소지를 갖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공주시에 부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향나무 앞에 조성된 문화마을



朝鮮朝時代 나라 빛낸 名臣과 孝子

애일당 정분(愛日堂 鄭笨)

(? ~ 1453)

선생의 이름은 분(?), 자(字)는 자외(子畏)이며, 호는 애일당(愛日堂), 시호는 충장(忠莊), 본관(本貫)은 진주(晋州)이다. 시조(始祖)는 고려시중평장사 예(高麗侍中平章事 藝)이며, 高祖는 고려 공민왕(恭愍王)때 청천군시문량(靑川君侍文良) 을보(乙輔)이며, 증조(曾祖)는 송록대부문과부사(崇祿大夫文科府使) 천덕(天德)이고, 조부(祖父)는 고려 찬성사(贊成事) 신중(臣重)이다. 부친은 영의정 이오(以吾)로 太宗, 世宗 때 名臣이었다. 이처럼 名家에서 태어난 선생은 이목구비가 빼어나고 영특했으며 자라면서 학문에 뜻이 깊고 도량(度量)과 재간(才幹)이 활달하여 나라 사랑과 효행이 남달랐다.

사람들을 만나면 늘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히 여겨야 할 일은 忠과 孝다.”

선생은 태종 때 벼슬을 시작하여 태종 16년(1416)에 경승부승(敬丞府丞)으로 친시문과(親試文科)에 합격한 이래 단종 원년(端宗 元年) 계유정란(癸酉靖難)으로 화(禍)를 입기까지 37년간을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였다.

선생은 충청도와 평안도의 관찰사를 지냈으며 토목 및 건축과 축성(築城)에 대한 조예가 깊어 경복궁(景福宮), 숭례문(崇禮門) 등을 감축(監築)하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및 황해도 도읍의 성곽을 많이 고쳐 유비무환에 힘썼다. 또 영릉 및 현릉(顯陵, 文宗陵)의 산릉제조(山陵提調)의 어려운 일을 맡아서 무난하게 책임을 완수하였다.

外交面에서도 능숙하여 明나라 사신(使臣)으로서 우리에게 유리한 외교를 폈다.

문종(文宗)이 병약(病弱)하여 단종(端宗)을 보필해 달라는 세종의 부탁을 받고 영의



정분 정지산 정려

정 황보인(黃甫仁), 우의정 김종서(金宗瑞)와 더불어 어린 단종을 섬겼다. 단종 원년 10월 선생이 충청, 전라, 경상도 도체찰사(道體察使)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이끄는 혁명세력이 변란(變亂)을 일으켜 조정(朝廷)의 요인을 암살하고 실권을 자기들 수중에 넣었을 때 선생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청주에 도착, 한양의 소식을 알고 급히 서울로 올라가던 중 용안(用安)역에서 금부도사(禁府都事)에게 체포되어 전라남도 승주군 낙안(樂安)으로 귀향 갔다.

다음해(1453) 2월에 다시 광양으로 옮겨져서 귀양살이를 하던 중 8월 20일 한양에서 내려온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보는 가운데 처교(處絞, 교수형)되었다. 선생은 형(刑)의 집행에 앞서 “내가 왕명(王命)으로 죽지만은 죽음에도 명절(名節)이 따로 있다. 나의 罪名을 모반죄(謨叛罪)로 몰아서 죽이지만 나는 모반한 일도 없고 오직 어린

주상(主上)을 잘못 보필한 죄밖에 없다. 내가 만에 하나라도 二心を 품었다면 내가 죽은 뒤에 하늘이 맑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천변(天邊)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형(刑)이 끝나자마자 맑던 하늘이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비가 내리고 오색무지개가 허공을 가로질렀다고 한다.

영조 22년(1746) 신원복관(伸冤復官)되었고, 순조(純祖) 4년에 충신정려(忠臣旌閭)의 은덕(恩德)이 있었고, 순조 8년 불조지명(不祧之命)을 받았기에 후손들이 이 불조사우(不祧祠宇)를 지켜오고 있다.

자연을 따라가는 소리

오카리나



오카리나란 ‘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도자기 피리’를 말한다.

입으로 불어 넣은 바람이 에지에 닿아 갈라지면서 소리가 나는 플레절렛 형태의 악기로서 보통의 관악기와는 달리 취구 반대쪽의 구멍이 막혀 있는 폐관악기(閉管樂器)다.

대부분의 악기들은 표준적인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오카리나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씩 다른 형태가 많아서 어떤 것을 표준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카리나의 정의를 내릴 때는 ‘흙으로 만든 피리’라고 하는 것이다.

오카리나는 보통 한 옥타브 내지는 한 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을 가지고 있으며 오카리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13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다.

오카리나의 가장 큰 특징은 ‘맑은 소리’이다. 오카리나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대부분 ‘그 맑은 소리에 반했다’는 것은 오카리나의 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알려 주는 말이다. 그리고 고온에서 구운 도자기 악기라는 신비로움이 한층 그 매력을 더해 준다.

오카리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배우기 쉽다는 것이다. 리코더를 불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누구나 ‘학교 중’ 같은 곡은 처음 접한 후 10분 정도면 연주가 가능할 정도다.



오카리나반 수업 중

오카리나, 명칭의 유래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비슷하게 출현한 오카리나는 그 종류도 많고,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면 대개 흙으로 만든 피리 정도는 있게 마련이어서 특별한 정의가 어렵다.

남미 지역에서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대체로 둥근 모양에 3~4개의 구멍을 가진 형태의 오카리나가 주로 쓰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훈(오른쪽 그림)이라는 항아리 형태의 오카리나가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이집트의 벽화나 아프리카 원주민에게서도 역시 오카리나라고 할 수 있는 악기를 찾아볼 수 있다.

훈



오카리나의 발달

오카리나가 오늘날처럼 음악을 위한 악기가 된 계기는 19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주세페 도나티(Giuseppe Donati)란 사람이 오카리나를 개량한 것이다.

도나티의 개량은 거의 발명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오카리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의 단순한 3~4개의 음계를 연주에 사용할 수 있게 음역을 넓혔으며 새로 조율을 했다. 오카리나란 이름도 이 때 붙여진 것이다.



공주문화원 오카리나 강좌 안내

강좌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강의내용 : 오카리나 연주하기

강 사 : 정 현 정(롯데문화센터 강사,
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 수석단원)



“사이버 공주시민 가입하면 혜택이 다양해요”

— 문화제 관람료 면제, 요식·숙박업소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혜택도
다양한 사이버 공주시 홈페이지



공주시(시장 이준원)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사이버 공주시민 가입고객이 다양한 혜택에 힘입어 12만 명을 넘어섰다.

공주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학생·기업인은 물론 전국의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이버 공주시민에는 문화유적지 관람료 면제,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요식·숙박업소 이용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공주시가 주말을 이용,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마련한 5도2촌 주말 도시 시범마을 체험기회 제공과 함께 연중으로 펼쳐지는 크고 작은 각종 축제 개최 안내도 해준다.

이러한 사이버 공주시민 가입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1천여 공주시 공무원의 지역사랑과 이준원 공주시장의 대기업 방문, 홍보활동이 한 몫을 했다.

한편 공주시 한 관계자는 “사이버 공주시민은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혜택도 다양해 가입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2010년까지 목표치인 100만명 가입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54회 백제문화제, 세계속 문화제전 초석마련



연문광장 공연 모습

‘700년 대백제의 꿈’이란 주제로 열린 제54회 백제문화제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월 12일 공주에서 화려하게 폐막됐다.

이번 백제문화제는 당초 목표한 수치보다 많은 100여만명(공주시)의 전국 각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나 프로그램 운영, 축제장 구성 등에서도 세계 속의 문화제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공주시는 그동안 이벤트 형태의 축제를 탈피,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고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의 전환과 곰두리 열차, 초가부스 분양 등 수익형 축제로 전환한 것도 이전 대회와 다른 점이다.

갈대밭과 쉼다리 그리고 금강부교는 지난해에 이어 가을의 추억을 흠뻑 느낄 수 있어 올해도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렸고, 금강철교의 루미나리에나 처음 시도한 유등제, 4천여개의 소망등이 어우러져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도 이번 축제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공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빼 놓을 수 없었다. 행사장 안내는 물론이고 화장실 청소나 금강부교 관리 교통지도, 주차장의 완벽한 관리운영도 만들어 냈고 외국인들의 통역봉사도 활발했다는 평가다.

서울·부산·제주 등지부터 일본 관광객까지 폭넓은 지역에서 축제장을 찾은 인파를 실감 할 수 있었던 것도 홍보면에서 지난해보다 두드러진 노력의 결과였다.



1회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곰두리 열차

공주시, 국내 최초로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 이용



이번 시설에 연료가스화 정제기술에서 전 처리 기술을 국산화했고, 바이오 가스 연료화 정제시스템 핵심기술과 고 효율화 분산전원 기술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게 평가된다.

충남 공주시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지난 9월 25일, 국내 최초로 축산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MGT(마이크로가스터빈) 발전시스템의 기술개발에 성공, 본격적인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연구개발한 이번 시설은 발전용량 30kW급 2대로 전액 국비로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5년 지원대상이 확정된 이후 3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앞으로 버려지는 가스의 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방지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 민원실에 LED 전광판이 떴다'

- 여권민원, 민원시책, 생활정보 등을 민원용 홍보 전광판에 담기로

공주시가 여권 등 복잡한 민원시책 등을 전광판에 게재,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키로 해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11월중으로 여권민원, 민원시책, 시정소식, 생활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를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비 1,200만원을 들여 시청 종합민원실내에 풀칼라의 LED 전광판을 설치키로 했다.

공주시가 설치할 전광판은 선명한 고화질의 화면과 생동감 넘치는 동영상을 담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그동안 복잡한 민원시책과 각종 정보환경의 변화로 수시로 바뀌는 정책을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공주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공디자인 입힌다

공주시가 아름답고 특색있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일률적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다양한 형태로 건립하는 공공디자인 도입사업을 전개한다.

지난 9월 초순부터 건립에 들어가 현재 의당면 중흥1리, 유구읍 덕곡리, 사곡면 대중리 등 마을회관 8곳과 우성면 보흥1리 계룡면 기산1리 등 경로당 4곳을 신축하고 있다.

한편 공주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을 도입한 명품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5도2촌 주말도시 마을을 찾는 도시민들에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부상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진 위) 우성 보흥1 경로당 조감도
사진 아래) 유구 석남 마을회관 조감도



공주시가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를 확 바꾼다

공주시는 11월부터 시민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공모해 기업들의 불만이나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시정현안에 대해선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참신한 현장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과감히 반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업, 시민들은 ‘공주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아이디어방’에 마련된 제안 코너에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실현가능성을 높여가는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 실·과·팀장급 책임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시책에 반영된다.

특히 공주시는 시민과 공무원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제안자가 자부심을 갖도록 제안을 반영한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도 추진키로 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국가정책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탄생

이용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택시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노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다.



공주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콜택시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4,000만원을 지원, 7인승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해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에 위탁하고,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콜택시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용요금도 일반 택시요금의 절반밖에 안돼 사회 약자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공주시, 웅진동 청사 개청

산성동과 웅진동이 통·폐합돼 웅진동으로 공식 출범



새 웅진동 청사는 기존 산성동 주민센터 소재 지인 금성동 182-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 새 웅진동 청사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김태룡 공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대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새 출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통·폐합은 정부의 소규모 통·폐합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인구 5,000명

미만, 면적 3km²미만에 해당되는 공주시의 산성동이 웅진동과 통합하게 됐다. 이로 인해, 웅진동은 인구 10,637명으로 공주시 전체인구의 8.4%를 차지하고 면적도 6.62km²에 이르게 됐다.

곰나루유원지에 대백제전 메인행사장 건설

2010년 상반기까지 고마 아트센터와 전시관 및 각종 편의시설



대백제전 메인 행사장인
‘고마 아트센터’ 투시도

공주시 금강 변에 위치한 곰나루유원지에 2010년까지 대백제전 메인 행사장인 ‘고마 아트센터’를 비롯해 숙박시설인 ‘국민여가 캠핑장’, 공예 체험공간인 ‘공예 공방촌’, 대형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위치해 있는 송산리고분군과 국립 공주박물관, 옛 충청관아인 선화당, 곰나루 전설이 서린 곰 사당 등과 함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백제문화권 관광메카가 예상되고 있다.

세계인의 축전이 될 대백제전의 메인 행사장에는 440여억 원을 투입, 2010년 상반기까지 66,291㎡의 부지 위에 고마 아트센터와 전시관 3동, 공연장 1동,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특히, 곰나루유원지 끝단 금강 변에는 국내 대기업과 합작으로 수백실의 콘도미니엄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곰나루유원지가 머지않아 중부권 관광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대 '영광'의 60주년

개교 60주년 공주대, 국제화 비전 선포식

국립 공주대학교가 문을 연지 60주년을 맞았다.

공주대(총장 김재현)는 지난 10월 30일 백제교육 문화관에서 중국 상하이사범대학 총위하우 총장 등 내외빈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공주대는 특히 2020년 한민족 세계대학,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 유치 ▲우수한 인재 육성 ▲세계 연구중심대학 달성 ▲대학 인프라 개선 ▲한민족 교육문화 메카의 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화비전'을 선포했다.



KNU story III

국제화 비전
세계의 명문대학, 한민족 세계대학

**한민족교육문화 메카 실현으로
글로벌 공주대학교 만들기...**

해외한국어원공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해외한글학교

한글학과
한글학과
한글학과
한글학과
한글학과

한민족 교육문화 메카

한민족 교육문화 메카

유망기관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내트위크

한민족 교육문화 메카

해외한글학교

한글학과
한글학과
한글학과
한글학과
한글학과

해외 한국인 기업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언어네트워크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국내 한국어 교육원공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주소 :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네트워크 / 전화번호 : 041-850-0091
팩스번호 : 041-850-8058 / 이메일 : hangeul@kngju.ac.kr



공주시, 목화꽃 만발... 향수 불러

현재 신평면 산정리 마을에는 시골 새색시와 같이 부끄럼을 갖고 살포시 뽀얀 속살을 드러내는 등 목화꽃이 만발해 보는 이를 즐겁게 하고 있다.



고층빌딩과 아스팔트 등 현대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삭막한 현실에서 흘러간 유행가처럼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이 있다.

충남 공주시내에서 예산방향으로 국도 32호선 중간에 위치한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마을에는 넉넉한 시골의 인심과 함께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할 목화동산이 일대장관을 이루고 있다.

지난 봄 공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잡초만 무성한 신평면 산정리 국도 32호선 도로변 공터에 아름다운 목화동산을 만들기 위해 파종한 목화씨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만개해 도시민을 유혹하고 있다.

합성섬유가 개발되면서 목화재배는 급격히 쇠퇴해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만 여겨졌던 것을 공주시가 다시금 재현해 낸 것이다.

3,300㎡ 규모로 아름답게 조성된 목화동산은 어른에게는 옛 추억을 간직하고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산교육의 장이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제23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

공주시청 공공시설 관리소, 이걸재 씨



충남 공주시청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공연기획을 담당하는 이걸재 씨는 10월 16일,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후원하는 제23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국무총리 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수상작인 공주시의 사투리, 민속, 생활용어 채록보고서는 평소 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15년간 자료수집활동 및 연구에 혼신을 다해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공주시 민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진우, 류현진 등

한화이글스 프로야구 선수들 사이버 공주시민 되다



이들은 앞으로 무령왕릉, 공산성 등 공주의 주요 유적지 무료관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송진우, 류현진 김태균, 김민재 등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 선수들이 7일 금강둔치공원에서 열린 제9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야구대회 개막식에 참석, 공주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사어비공주시민에 가입했다.



삼성도시바(주)와 유구읍 노동리 마을 - 1사1촌 2주년 기념식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노동리 마을과 1사1촌 자매기업인 삼성도시바(주)가 지난 10월 18일 1사1촌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도시바(주) 황인섭 대표는 마을회관에 대형 TV, 세탁기, 침구류 등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앞으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유구읍 노동리와 삼성도시바(주)는 지난 2006년 6월 22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월 1~2회씩 노동리를 방문, 농작물 식재,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촌 일손 돕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였다. 또, 설, 추석 등 우리 고유의 명절 때마다 매 가구에 제수용품을 제공하는 등 수많은 선행을 펼치고 있다.



공주교육청, 초등학교 입학 절차 달라진다

자녀의 조기입학 · 입학연기,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고만하면 가능해져

공주교육청은 초 · 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2009학년도 의무취학대상을 200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6세의 적령아동 및 만12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이 된다고 조기입학(2003.1.1~12.31 출생아동)과 입학연기(2002.3.1~12.31 출생아동)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고만하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여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학부모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9학년도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11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취학아동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배부 받아 2009년 1월 20일에 해당 학교에서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응소하여 취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공주영상대총학회, 축제기간 청소원들에게 식사대접

따뜻한 가슴을 지닌 스무 살의 프로 '칭송'



임병현 공주영상대학 총학생회장이 학교 청소원들에게 밤막걸리를 권하고 있다.

공주영상대학 총학생회(회장 임병현)는 학교 축제가 열렸던 지난 9월 30일 오전 12시 학교 구내식당에서 교내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원 20여명에게 정성껏 식사와 다과를 대접해 칭송을 받았다.

임병현 총학생회장(연기와 2년)은 “평소 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들을 볼 때 마다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까하고 고민을 해 왔다”며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총학생회 임원들과 상의 한 끝에 축제기간동안 약소하나마 식사 및 다과를 대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영상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스승의 날에도 스승은 물론 ‘인생의 스승’이라는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을 학교 청소, 경비 용역원들에게 달아준 바 있다.

공주교도소, 수형자 사회봉사활동 참여

공주교도소(소장 강영길)는 지난 10월 2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모범수용자 28명과 함께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금강원을 방문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금강원에 도착하여 주변 정비작업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 값진 땀방울을 흘린 수용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출소 후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전했다.

공주시 골프연합회원, 불우이웃돕기에 156만원 성금 기탁

공주시 골프연합회원들은 지난 10월 20일 연기군소재 한 골프장에서 제4회 국민생활체육 공주시 연합회장배 골프대회를 마치고 열린 시상식에서 240여명의 회원들이 현장에서 156만 6,000원을 모금,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공주시 골프연합회가 기탁한 성금을 충남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달, 관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청 시정조정실, 공산성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시정조정실 직원 10여명은 9월 28일 일요일 금성동 소재 공산성의 성안마을과 공영주차장 등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제54회 백제문화제 개막을 5일 앞두고 백제의 왕도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 산뜻하고 깨끗한 공주의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도에서 전개됐다.

백제 문화제 주 무대인 공산성 성안마을과 공영주차장, 금강 변 일대에서 전개된 이날 쓰레기 수거활동에서는 보이지 않는 숲속 깊은 곳까지 전개해 300 l 분량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윤종웅 사장 공주사랑 기금 1천만원 기탁

(주)진로 윤종웅 사장 제54회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 기원

(주)진로 윤종웅 사장이 제54회 백제문화제 성공기원 「공주사랑」 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윤종웅 사장은 지난 9월 17일 오전 11시 40분 공주시청을 찾아 이준원 시장에게 백제문화제 성공기원 「공주사랑」 기금 1천만원을 기탁하고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한편 (주)진로 윤종웅 사장은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가 고향으로 산성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로소주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기탁해 오는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현대모비스, 자매마을에 후원금 1,250만원을 전달

정안면 풀꽃이랑마을 명품가공사업 후원

(주)현대모비스가 지난 9월 26일, 자매결연 마을인 공주시 정안면 풀꽃이랑 마을이 추진하는 명품가공공장에 써달라며, 후원금 1,2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주)현대모비스 김철수 상무를 비롯 직원, 풀꽃이랑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가공사업의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 이후에는 풀꽃원터 정자 현판식과 함께 알밤오너농장을 방문, 알밤 줍기 체험을 했다.

명품가공 사업은 풀꽃이랑마을의 주 생산품인 서리태를 이용한 튀밥을 가공하는 사업이다.



공주 이은철씨, 공산성에 토끼 25마리 방사 '화제'

문화유적 사랑이 남다른 공주

의 한 시민이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 애지중지 아끼던 토끼를 방사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

은 공주시 금성동에서 백제양봉

원을 운영하는 이은철 씨(남, 62세). 벌에 매료되어 공주농고 1년 때부터 현재까지 양봉업에 매진해 온 이 씨는 지난 17일 문화관광의 도시 공주의 대표적 사적지인 공산성에 토끼 25마리를 방사했다. 이날 방사한 토끼는 생후 6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잿빛 집토끼로 자연 생존이 가능해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산성의 명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공산성이 제54회 백제문화제 행사의 주무대인 만큼 공산성에 방사된 토끼는 공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백제 양봉원 이은철 씨는 “시가 100만원 안팎의 작은 정성이지만, 방사한 토끼가 공산성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것을 생각하니 기쁨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의당 집터다지기’ 한국민속예술 참가 은상 수상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



공주시 의당면 의당 집터다지기 보존회(회장 전용주)는 10월 4일~5일까지 이틀간 제주도 서귀포시 천지연광장에서 열리는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해서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당 집터다지기는 집을 지을 때 다짐돌이라고 불리는 큰 돌덩어리를 동아줄로 묶어 여러 명이 높이 들었다 놓는 동작을 반복해 집터를 다졌던 전통 민속행사다.

농경문화의 협동과 공동체 의식을 잘 표현한 ‘의당 집터다지기’는 충청도 특유의 소박하면서도 구성진 노래 가락이 어우러지면서 35분여간 진행돼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의 달 기념행사

“굿 보러 가자”

국립공주박물관(관장 박방룡)은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함께 권역별무형문화재행사 “굿 보러 가자”를 실시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시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70여점의 작품이 국립공주박물관 우리문화 체험실에 전시되었다.

“굿 보러 가자”공연은 10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악인 오정해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된 ‘줄타기’의 보유자 김대균 공연을 시작으로 민요합창, 부채춤의 축하공연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문고산조(김무길), 서도소리(이춘목), 살풀이(정재만)와 같은 명인공연, 오정해의 축하공연, 국악실내악·평택농악 판굿의 폐막공연으로 이루어졌다.

2008 권역별무형문화재행사
Events in 2008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regions

1 Good! 보러가자

2008년 10월 4일(토) 오후 6시 30분
국립공주박물관 야외무대
4차 2008. 10. 31(금) 오후 7시 30분 포스코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

사회 오정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국립공주박물관 우리문화체험실 2008년 9월 25일(목)~10월 7일(화)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주박물관
문의 010-211-2179-1 (국립공주박물관) www.gj.go.kr 010-350-0327 (국립공주박물관) gje.go.kr



제5회 공주국제미술제

-계룡면 임림미술관



올해로 5회를 맞는 공주국제미술제가 지난 10월 31일 폐막되었다.

이번 미술제에는 러시아, 중국 등 외국작가 9명, 한국작가 31명의 총 100여 작품이 전시돼 자연미술문화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또, 전시회에는 우리가 만드

는 또 다른 세상이란 주제로 다양한 미술체험행사도 마련돼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였다.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특별기획전

2008년 11월 11일~2009년 10월 31일까지



공주시가 석장리 선사유적 발굴일인 11월 11일을 기념해 이색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구석기 역사의 첫 삽을 뜨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전은 지난 1964년 1차 발굴 당시부터 1992년 12차 발굴까지 연도별, 주제별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또, 전시기간동안 석장리 선사유적 발굴 8mm 영화가 상영돼 관람객들에게 당시 발굴현장의 감동과 함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기획전은 지난 1964년 우리나라 구석기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은 석장리 선사유적 발굴일인 11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 알밤축제 열려



전국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공주알밤 축제가 지난 10월 2일, 금강둔치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제54회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열려 전국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밤 음식 시식코너, 밤 음식점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공주알밤의 우수성을 맘껏 뽐냈다.



공주 영평사 '구절초 축제'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7080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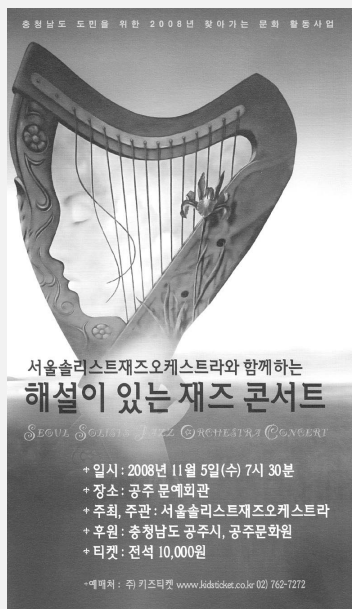
영평사 구절초축제가 지난 10월 4일 개막,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구절초 꽃 축제는 10월 11일과 18일 오후 4시에 지역음악인이 참여하는 7080음악회가 각각 열렸고, 12일 낮 12시에는 지역 어르신 초청 잔치가 열렸다. 이어 19일 오후 3시에 열린 폐막식에는 야단법석 풍물공원이 펼쳐졌다.

이번 축제기간 중에는 구절초 꽃차 시음회, 구절초 꽃 사진전 시회,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해설이 있는 재즈 콘서트



서울 솔리스트재즈오케스트라가 주최, 주관하고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문화원이 공동 후원하는 서울솔리스트재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재즈 콘서트가 11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렸다.

홍순달 서울 솔리스트재즈오케스트라 단장의 해설로 펼쳐진 이번 공연은 Copadabana, Because Mucho 등 총 11개의 곡으로 펼쳐졌다.

한편 서울 솔리스트재즈오케스트라는 전국 각 대학의 실용음악과 교수진과 국내/외 대중가수의 공연과 음반작업 및 뮤지컬 공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고 실력 있는 화려한 개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진 뮤지션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소규모 재즈편성에서는 맛볼 수 없는 웅장하고 파워풀한 다양한 장르의 재즈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공주문화원, 2008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은 2008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수료식을 지난 10월27일 오후 7시30분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문화원 지역문화학교는 시민들의 문화향상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실현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총 11개 강좌 14개 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93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그동안 매년 2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바 있다.

2008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서예반 작품전시회

공주문화원에서는 지난 10월 27일~29일 까지 3일간 서예반 작품전시회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전은 서예가 우공(愚工) 이일권 강사님이 지도하는 수강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 30여점의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2008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가곡의 밤

일시 : 12월 8일 오후 7시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초 겨울밤 공주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2008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가곡의 밤” 행사가 공주문화원 주최로 12월 8일 오후 7시에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평생교육사업 일환으로 가곡 교실에 참여하여, 실력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한 지역문화학교 가곡반원들이 공주시민을 위하여 준비를 했다.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가곡 반은 가곡 부르기에 관심 있는 따뜻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곡교실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공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대강당 공연장이 만석이 되어 마음까지도 훈훈한 따뜻한 밤이 되길 바란다.



2008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닥종이 인형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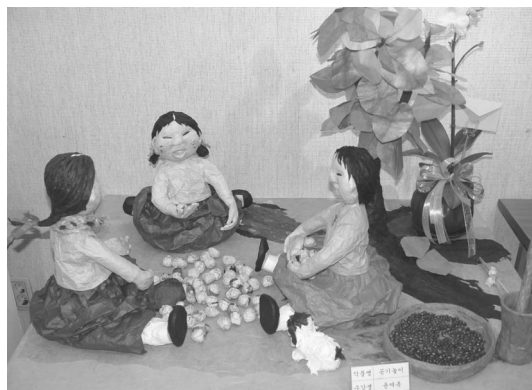
일시 : 11월 11일~16일 (6일간)

장소 : 공주문화원 제 1 전시실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닥종이 인형반이 개설된 지 올해로 3년을 맞아 공주문화원 제 1전시실에서 11월 11일~16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무더운 날씨엔 시원한 이야기, 쌀쌀한 가을엔 따스한 이야기, 잊혀져 가는 옛 놀이들을 표현하고자 서로의 테마 대로 정겨운 인형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수강생들의 8개월 여 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전시회로 뜻 깊은 전시회가 되었다.





예술 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마흔 여섯 번째 정기공연

한국 춤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전통 우리 춤으로의 초대

일시 : 11월 21일 오후 7시

장소 :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회관 컨벤션홀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이 주최하고 예술 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회장 권재덕)”이 주관하는 예인촌 마흔 여섯 번째 정기공연이 11월 21일 오후 7시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최선무용단의 공연으로써 공주대학교 무용학과 출신들 중 우리 춤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최선무용단은 우리지역에서 한국무용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 한국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여러 차례 공연을 하여 우리 춤의 우수성을 알린바 있는 자랑스러운 단체이다.

이번 공연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문화 활동 및 예인촌활동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며 공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제28회 공주 미술협회 정기전

차가운 기운이 옷깃을 스치는 빠른 계절의 순환을 체감하며 높은 가을하늘과 주변의 풍경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제28회 공주미술협회 정기전이 지난 10월 3일(금) ~ 11일(토)까지 9일간 공주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백제문화제와 어우러진 이번 전시회는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설치미술 등 다양하고 훌륭한 작품이 전시되어 예술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공주문화원 향토작가 초대전

추공(秋公) 권영대(權寧大) 서전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에서는 10월 13일(월)~10월 20일(월)까지 8일간 추공(秋公) 권영대(權寧大) 선생의 초대 서예전을 개최하였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서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묵향 속에 흠뻑 젖어 마음까지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서예전이 제 1, 2 전시실에 마련되었다.

한편 추공 권영대 선생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현재 서울시 노원구 서예부문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한중일 서예문화교류협회 이사, 국제미술작가협회 서예위원, 대한민국서화백일장 서예부문 심사위원 역임 등 중앙서예전에서 중견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4회 공주 조각회 정기전

백제의 훌륭한 조각 역사를 되새기며



백제의 훌륭한 조각 역사를 안고 출범한 공주조각가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여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에서 10월 21일(화)~25일(토) 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조각이란 정, 톱, 망치, 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단단한 재료를 깎거나 쪼는 것을 의미하며, 입체로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측면 또한 중요하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는 조각 예술가들의 작품 15여점이 전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왔던 지역문화의 활성

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주지역민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다.

제12회 만희복지사업 생활지원금 수여

불우이웃 20명에 1천만원 전달

만희복지사업운영위원회(회장 정재욱 공주문화원장)가 설립자인 박형만 사장을 비롯한 이준원 공주시장 및 각 기관 단체장과 수혜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6일(화) 오전 11시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만희복지사업운영위원회」설립자인 박형만 사장은 공주시 봉황동 출신이며 미국 LA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사업가이다.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뜻을 품고 97년 설립한 만희복지사업운영위원회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아 불우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빈곤 모범학생 등에게 1천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수여하였다.





2008년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	2008년 무자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8년 1월 3일 (10:30) · 장소 : 공주문화원강당 · 참석인원 : 400명	· 관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 장, 유지 신너하례 인사 교류 및 축하 공연
2	공주문화소식지 발간	· 기간 : 1월~12월 · 4×6배판 68쪽 · 격월 발간 3,000부	· 공주의 어제와 오늘, 웅진칼럼, 아름다 운공주가꾸기,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 땅이름이야기, 공주사람 이야 기, 전통마을 찾아서 등
3	지역문화학교 다종이 수강생 작품전시	· 일시 : 1/3-1/10 · 장소 : 문화원 제2전시실	· 지역문화 다종이 전시 · 수강생 및 강사들의 작품전시
4	공주문화원 2008 이사회	· 일시 : 2/12, 18: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2007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세입세출결 산, 지방문화원 표준정관개정에 의한 변경사항
5	공주문화원 정기총회	· 일시 : 2/19, 18: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2007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세입세출결 산, 지방문화원 표준정관개정에 의한 변경사항
6	공주문화원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 일시 : 2/18 - 7월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50명	·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 성개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 훈련을 통하여 계층 간 문화수준의 격 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 ①국선도반 ②풍물반-초급 ③풍물반-중급 ④댄스스포츠반 ⑤요가반 ⑥가곡반 ⑦서예사군자반 ⑧일본어반 ⑨다종이종이접기 ⑩오카리나반 ⑪ 생활중국어 ⑫ 다도반
7	예인촌 정기공연 “충남연정국악원과 함께하는 제1회 토요 국악상설무대 만남”	· 일시 : 5/31 19:30 · 장소 : 충남연정국악원 (선화당) 잔디마당 · 참석인원 : 300명	·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 는 볼거리를 제공 -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연주회



문화원소식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8	제13회 “효”사상 선 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백일장	· 일시 : 6/13 14:00 · 장소 : 공산성 쌍수정광장 · 참석인원 : 800명	· 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에게 효 사상을 선양 고취시키고 문학 의 저변확대 · 참가대상 : 공주시 초 · 중 · 고학생
9	예인촌 정기공연 “김혜식이 사진과 함 께하는 공주소리꾼 이결재의 아라리謠	· 일시 : 6/19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3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 는 볼거리를 제공 -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주회
10	제13회 “효”사상 선 양 공주시 초중고 학 생 백일장 시상식	· 일시 : 6/26 15: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00명	-백일장 시상식 -참가대상 : 공주시 초 · 중 · 고학생
11	공주문화원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 일시 : 7/1 - 10-31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50명	·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 성개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 련을 통하여 계층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 ①국선도 ②품물반-초급 ③품물반-중급 ④댄스스포츠반 ⑤요가반 ⑥가곡반 ⑦서예반 ⑧생활일본어 ⑨다종이종이접기 ⑩오카리나 ⑪ 중국어 ⑫ 다도반
12	실버전통예술단 논두렁발두렁발표회 “녹두장군 오셨네”	· 일시 : 7/26 18:00 · 장소 : 서울국립극장 · 참석인원 : 300명	· 녹두장군과 수많은 무명 농민군들! 그 숭고한 투쟁정신과 순결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연
13	공주문화원 초대기획전 “비상” 展	· 일시 : 8/1~8/7 · 장소 : 문화원 제2전시실	· 공주문화원 초대 · “비상전 초대전”
14	2008 공주문화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국립중앙박물관, 수원화성”	일시: 8/23(토), 8/24(일) 8/30(토), 8/31(일) 9/6(토)	· 향토문화유적 순례답사를 통하여 공주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 유적에 대한 애호의식을 일깨워 주고 지식을 함양,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유적답사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5	예인촌 정기공연 “Pianist 강나영의 열린 콘서트 뉴턴현 대음악앙상블 초청 연주회 ”	· 일시 : 9/3(수)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70명	·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 는 볼거리를 제공 -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주회
16	제22회 전국남녀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 일시 : 10/6~10/7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민족 고유의 전통가락으로 민족의 얼과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문화를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17	공주문화원초대전 “추공 권영대”	· 일시 : 10/13~10/20 · 장소 : 문화원 제1,2전시실	· 공주문화원 초대 · “ 추공 권영대 ”
18	2008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발표회 및 수료식	· 일시 : 10/27 19:00 · 장소 : 문화원 강당	· 지역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발표회 및 수료식
19	지역문화학교 서예 수강생 작품전시	· 일시 : 10/27~10/29 · 장소 : 문화원 제1전시실	· 지역문화 서예반 전시 · 수강생 및 강사들의 작품전시
20	지역문화학교 닥종 이 수강생 작품전시	· 일시 : 11/11~11/16 · 장소 : 문화원 제2전시실	· 지역문화 닥종이반 전시 · 수강생 및 강사들의 작품전시
21	공주문화원초대전 “향토작가 이문하”	· 일시 : 12/13~12/20 · 장소 : 문화원 제1전시실	· 공주문화원 향토작가초대 · “향토작가 이문하 ”



향토출신 작가

새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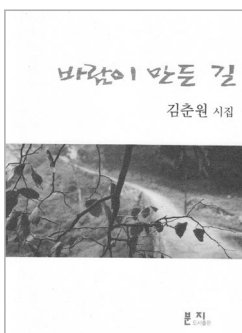


公州 멀리서도 보이는 풍경 저자: 나태주

공주라는 곳

세상을 두루 다녀 보았지만 공주처럼 아기자기한 고장도 별로 없다. 공주의 자연처럼 웅숭깊은 자연도 흔하지 않다. 예로부터 공주에는 ‘춘마곡(春麻谷) 추갑사(秋甲寺)’라 하여 봄에는 마곡사 봄 경치가 볼만하고 가을에는 갑사 경치가 볼만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경치 구경 얘기만이 아니라 보다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봄과 가을, 춘추(春秋)라니! 춘추는 사람 나이의 다른 이름이요, 그 자체가 세월이요, 또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야말로 인생과 철학이 스며든 말로 공주의 자연과 그곳 사람들을 잘 나타내 준다.〈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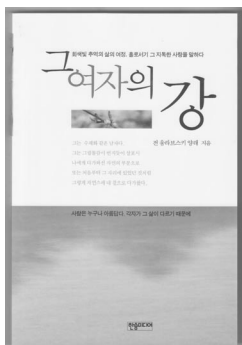
시인 나태주 : 1945년 충남 서천 출생.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 초등학교에서 43년 교직생활 후 교장 정년퇴직. 흙의 문학상, 충청남도문화상, 현대불교문학상, 박용래문학상, 시와시학상, 편운문학상 등 수상, 시집 「대숲 아래서」 외, 산문집 「외할머니랑 소쩍새랑」 외 다수 출간



바람이 만든 길 저자: 김춘원

숲 속에 길이 숨어 있네
나무와 나무 사이
돌과 나무 사이
검불 잡초 헤치고
작은 돌을 옮기고
날아오르던 새들도
숨소리 죽이며 〈본문 중에서〉

시인 김춘원 : 1955년 대전 출생,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공주금강여성 문학회, 금강시마을 동인, 2005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신인상으로 등단, 현재 공주정음학원장



회색빛 추억의 삶의 여정, 홀로서기 그 지독한 사랑을 말하다

그여자의 강 저자: 전 옴라브스키 양래

그는 수채화 같은 남자다. 그림물감이 번지듯이 살포시 나에게 다가와선 자연의 한 부분으로, 또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레 내 곁으로 다가왔다.

본명 전양래 : 1950년 경상남도 하동 출생. 공주여자중고등학교를 졸업. 70년도에 공주사범대학 학장 비서실에서 근무, 공주 ‘백제국악원’ 원장, 공주시 사회정화위원 등으로 활동, 88년 결혼과 함께 도이칠란트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추억속의 공주를 떠올리며 첫발을 내딛었다.



할머니

최 성 립 | 공주고등학교 1학년

할머니께서 사주신 운동화
아직도 신발장에 있어요.

넉넉히 신으라 사주셨던
그 운동화가
이젠 작아요.

기분 좋아 매일 신고 다니며
수년을 함께했던 추억들이
운동화와 함께 닳아가요.

사랑해요.
한 번도 말 하지 못했던
그 말...

어느새 훌쩍 자라버린 나
당장이라도 달려가
말하고 싶지만

나이를 먹음에 따라
수줍음도 늘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할머니께서
사주신 운동화가
아직도 신발장에 있어요.





알림

「공주문화」지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화지는 공주가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어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명	연령	자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주문화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www.culturegj.or.kr | 네이버검색:공주문화원